코끼리와 독수리

Taing Kim Leang, Phan Channa, Ly Vanthorn

옛날 옛날에 어느 한 숲 속에 코끼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은 독수리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 왕이 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봤습니다. 꿈에서 독수리 왕은 그 코끼리를 잡아 먹었습니다. 독수리 왕이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코끼리 고기를 맛있게 먹겠구나.’

독수리 왕은 부하 독수리들에게 코끼리를 잡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독수리 왕의 명령에 따라 독수리들이 코끼리를 찾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코끼리를 만나서 독수리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코끼리는 너무 슬펐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독수리 왕에게 가겠어요.”

“여보, 가지 말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코끼리는 독수리를 따라 가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토끼가 울고 있는 코끼리를 보고 왜 우는지 물었습니다. 코끼리가 토끼에게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토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 드릴게요.”

토끼와 코끼리, 독수리가 독수리 왕국에 도착해서 독수리 왕 앞에 갔습니다. 토끼가 독수리 왕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 꿈 속에 독수리 왕님이 나타났어요. 꿈 속에서 제가 독수리 왕님을 죽였어요.”

이 말을 들은 독수리 왕이 토끼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봐라, 꼬끼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라. 꿈이 모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나는 옳고 정당한 것만 행하도록 하겠다.”

토끼 덕분에 꼬끼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